이른 장마…재해위험지구 많은 전남 비상

사업비 없어 침수·붕괴 우려 15곳 방치

수확 앞둔 양파·마늘 농가도 발만 동동

이른 장마로 재해위험지구가 많은 전남 지역에 비상이 걸렸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지만 사업비가 없어 낡은 다리를 아직 고치지 못했고, 출하를 앞둔 농가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붕괴와 침수가 우려되는 195곳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 있고, 정밀진단 결과 교량 506곳 중 20곳이 안전사고 발생 위험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494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들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고 있지만 정비율은 45%에 그치고 있고, D등급 다리 중 개축 완료된 곳은 창정교(곡성 입면), 덕림교(순천 황전) 등 2곳에 불과하다.

D등급 다리 중 현재 공사 중인 곳도 월선교(무안 청계) 1곳 뿐이며, 남은 15곳의 다리는 실시 설계 중이거나 설계를 끝냈지만 사업비가 없어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예산이 부족해 월봉교(화순 이양), 묵곡1교(〃) 등 1975년에 만들어진 다리 2곳은 설계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남도는 이들 다리를 모두 정비할 경우 170억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올 추경예산에 30억원을 반영했다.

또 지난해 잇따라 3개의 태풍이 불어닥쳐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은 모두 복구 완료됐지만, 공공시설물(3376건)은 막바지 공사(공정률은 94%) 중이기 때문에 이른 장마가 달갑지 않은 실정이다.

장마를 앞둔 농가도 울상을 짓고 있다. 큰 비 소식은 들리는데, 일손이 부족해 수확은 못하고 있다.

17일 현재 도내 양파와 마늘의 수확 실적은 각각 45%와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양파는 1만124ha 가운데 4500여ha, 마늘은 8895ha 중 4450여ha만이 수확을 마쳤지만 이른 장마가 시작되면 사실상 수확 작업이 어려워진다. 또 다 자란 양파를 제때 수확하지 못하고 장맛비에 방치하면 품질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침수피해 대비용 모래주머니 비치 17일 광주 북구청 건설과 직원들이 용봉동 모래주머니 적치장에서 모래주머니를 운송 차량에 싣고 있다. 이날 북구청은 모래주머니를 침수피해 예상지역에 고루 비치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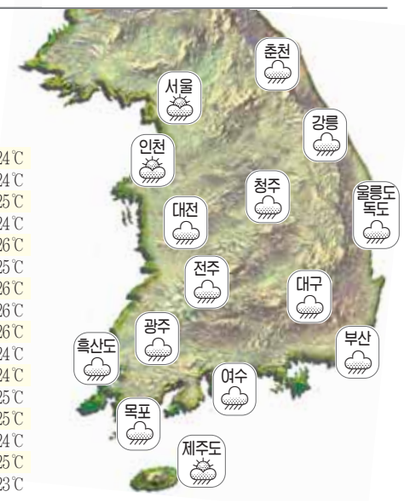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18분 해짐 19시 49분 | 달뜸 14시 30분 달짐 00시 55분

장마시작

천둥·번개 동반한 강한비 내리겠다.

광 주	흐려져 비	22/24℃
목 포	흐려져 비	20/24℃
여 수	흐려져 비	22/25℃
나 주	흐려져 비	21/24℃
완 도	흐려져 비	21/26℃
구 례	흐려져 비	22/25℃
강 진	흐려져 비	21/26℃
해 남	흐려져 비	21/26℃
장 흥	흐려져 비	21/26℃
순 천	흐려져 비	21/24℃
영 광	흐려져 비	21/24℃
진 도	흐려져 비	21/25℃
전 주	비	22/25℃
군 산	비	21/24℃
남 원	비	21/25℃
흑산도	비	20/23℃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m
먼바다	남~남서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1.0m
먼바다	남~남서	1.0~2.0m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뇌졸중지수
경고	보통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0m
먼바다	남~남서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먼바다	남~남서	1.0~2.0m

	밀물	썰물
목포	01:33 14:16	08:32 21:23
여수	09:52 22:42	03:33 16:40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9(수)	20(목)	21(금)	22(토)	23(일)	24(월)
날 씨						
최저/최고	21/29	20/30	20/30	21/29	20/28	19/29

'문열고 냉방' 오늘부터 단속

건물 냉방온도 26도로 제한

18일부터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영업장을 단속하고 전기 다소비 건물의 냉방온도를 26도로 제한한다.

여름철 전력피크 시간대(오후 2~5시)에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로 지정된 476곳과 공공기관의 에어컨을 30분 단위로 번갈아 꺼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3기의 가동 중지 사태 등으로 올여름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대규모 전기사용자의 전력 의무감축 등을 포함한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를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원) 부과는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우선 계약전략 5000㎾ 이상인 2631개 사업체는 8월 5~30일 피크시간대(오전 10~11시, 오후 2~5시)의 전기사용량을 부하변동률에 따라 3~15% 의무 감축하도록 했다.

개별적으로 목표 이행이 어려운 기업은 계열사·조합 소속 다른 업체와 더불어 전체 절전량을 공동 감축해도 된다. 전체 기간에 걸쳐 감축하기 어려우면 5일이상 일정기간에 감축총량을 단기간에 줄일 수도 있다. 다만, 의무감축 대상에서 공항과 대중교통 시설, 의료기관, 초중교 학교건물 등은 제외된다. 건물 냉방온도 제한은 6월 18일~8월 30일 적용된다. 계약전력 100㎾ 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 6만8천여곳에 대해 실내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제한한다. 다만, 공동주택과 유치원, 의료기관, 사회복지·종교시설, 전통시장 등은 예외다. /연합뉴스

진드기 바이러스 법정감염병 지정

국내서 사망자 5명을 낸 '진드기 바이러스' 질환이 법정감염병으로 지정, 관리된다.

보건복지부는 작은소참진드기가 옮기는 질환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하반기에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했다.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면 법령에 따라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시 감시체계가 작동된다. 또 감시 결과 발생 빈도에 변화가 나타날 때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연합뉴스

"조선대 차기 이사진 선임 지역 차원 대책 세워야"

이사진 구성 지연 비난 거세

고유 권한인 개방이사 선임권을 포기해 학내외 비난을 샀던 조선대 이사회가 임기만료 5개월이 지났음에도 차기 이사진 구성을 하지 않아 지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조선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열린 이사회는 현 임기만료 이사 8명 중, 2명을 제척하고 6명을 선임해야 하지만 또다시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렇게 현 이사진에서 선임한 6명과 추가로 선임할 개방이사 3명으로 조선대 이사회는 구성된다.

특히 지난달 말 조선대 이사회는 이사진 구성을 촉구하는 학내외 여론에 밀려 자신들의 고유 권한인 개방이사 선임을 사실상 교육부에 의뢰했다가, '(교육부의) 개방이사 후보 추천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사회가 개방이사를 선임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같이 조선대 이사들은 스스로 이사회 권한을 포기했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연임의 욕심 때문에 이사진(8명→6명으로 감축) 구성을 미루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학내 일각에서는 임기 만료 이사들이 개방이사 선임권 포기는 물론 차기 이사진 선임에 대한 의지도 없는 만큼 이사진 전원 교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임기가 만료된 이사회는 지난해 총 정원 9명중 이사 1명이 개인적인 사유로 사퇴한 이후,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않아 8명이 활동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임기가 3~5개월가량 지난 상태다.

이에 대해 최근 서재홍 조선대 총장이 직접 이사회 구성 촉구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조선대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가 이미 성명을 낸 상태며, 총학생회가 항의 차원에서 이사회 사무처를 점거하는 등 차기 이사진 구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강경해지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7개 특성화고 학과 통·폐합

내년부터 광주지역 7개 특성화고교의 일부 학과가 통·폐합되고, 8개 학급이 줄어든다.

광주시교육청은 17일 산업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 있는 특성화고 육성을 위해 적정규모 학과 개편을 추진, 7개 학교에서 8개 학급을 감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편 계획에 따르면 광주공고는 총 18학급에서 14학급으로 감축한다. 2학급씩인 컴퓨터응용설계과·메카트로닉스과·광정보기술과를 통합해 3학급의 폴리메카닉스과를 신설하고, 2학급인 전기과는 1학급으로 줄인다.

전남공고는 기계과 4학급을 3학급으로, 광주전산고는 정보통신과 3학급을 금융서비스과 2학급으로 각각 1학급 감축한다. 광주전자공고도 전산응용기계과와 전자기계과 4학급을 합쳐 자동화기계과 3학급으로 조정해 1학급 줄어든다.

금파공고는 3개과 9학급을 6학급으로 줄이고, 대신 군특성화과인 첨단장비정비과 2학급을 신설한다.

동일전자정보고는 토탈뷰티과 4학급을 6학급으로 늘리고, 대신 인터넷정보과 2학급을 폐지한다. 광주여상은 콜마케팅과 2학급을 없애고, 글로벌비즈니스과 4학급을 6학급으로 늘린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지역 특성화고 학과 개편

학교명	현행		개편후 (2014학년도)	
	학과	학급수	학과	학급수
광주공고	컴퓨터응용설계	2	폴리메카닉스	3
	메카트로닉스	2		
	광정보기술	2		
	전기	2	전기	1
전남공고	기계	4	기계	3
광주전산고	정보통신	3	금융서비스	2
광주전자공고	전산응용기계	2	자동화기계	3
	전자기계	2		
금파공고	디지털기계	3	기계	2
	통신전자	3	전기전자	2
	생명정보화공	3	생명화공	2
			첨단장비정비	2
동일전자정보고	토탈뷰티	4	토탈뷰티	6
	인터넷정보	2	폐지	
광주여상	글로벌비즈니스	4	글로벌비즈니스	6
	콜마케팅	2	폐지	